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 향상되는 것
중소기업 경쟁력이 바로
한국경제의 경쟁력**

머릿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천진환**
11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한국화가 **박대성**

커버스토리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김인호**

나의 경영이야기 제이시스템(주) 회장 **성평건**

지자체특강 한국조직문화연구소 소장 **최승훈**

발행인편지

세상을 보는 눈 한국웃음요가연구소 소장 **김영식**

회원&연구원소식 / LMI & YOU

특별칼럼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양병무**

석학논단 세종대 석좌교수 **남시욱**

증권이야기 동부증권(주) 본부장 **남기열**

조순칼럼

표지인물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 사진 **오경근** 원장

11

2006 November

등록 제89호 [매월]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발행일 : 2006년 11월 1일 발행인 : 장민기 인간개발연구원(KHDHDI) 주소 : 138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 2203 3500(선) F. 2203 1974 www.khdi.or.kr 디자인 : 디자인로드 www.cd02.com 인쇄 : (주)동명인쇄 T. 462 6323



“인생이 즐거워지는 315만 가지 방법, 교보문고”

삶의 특별한 즐거움을, 새로운 변화를 원하신다면 교보문고를 만나세요!
교보문고에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315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의 신흥 소비자를 잡아라

천진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중국은 1990년 대부터 세계 경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무서운 속도로 급부상해 오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거의 10%에 가까운 성장을 지속해 왔는데, 이러한 성장세는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이라고 경제전문기관들은 말하고 있다.

1990년대에 거대한 제조국가로서 자동차부품, 신발, 완구 등을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중국은 저임금과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가 고속성장의 원동력이 된 셈이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그들의 전략구상을 세우면서 중국을 생각하지 않고는 전략의 틀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중국 소비시장이다. 특히 최근 생성되고 있는 신흥 소비계층은 우리 기업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충분한 이유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 와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점차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2003~04년 40%를 상회하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2005년에 24.4%로 둔화되었고, 2006년 1~7월에는 10.9%로 둔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사실, 중국의 소비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도 그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2004년 현재 약 3,600만 도시가구는 적어도 2만 5천엔(약 3,000달러) 정도의 가용수입이 있어서 현재의 기준으로는 소비자층으로 분류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2009년까지 이 가구수가 거의 3배에 달하여 1억 5백만 도시가구가 이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더군다나 일부 계층은 이미 잘 성숙된 구매경험을 기초로 소비대열에 합류할 인구수가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다. 매년 약 2천만 명의 18세가 되는 젊은층이 합세하게 되면 그 규모는 가히 짐작할 만할 것이다.

중국의 소비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주하듯이 서구의 소비자들과 흡사한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특히 젊은 소비층은 전통적 가족과 사회적 가치를 끊임없이 포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그들이 현대식 제품을 선호하면서도 중국적 품미가 가미된 제품이나 행태를 선호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최근 국제 패션가에서 세계적 최고급브랜드의 하나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상하이 탕(Shanghai Tang)'일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제조업자들이 국내 소비자들의 기호를 살리면서도 남의 제품 모방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중국적인 제품이 많은 산업분야에서 충분히 세계적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R&D센터로서, 또한 세계 양질의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영향력은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 훨씬 빠르게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국제화의 신속한 진전과 함께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가 우리기업의 앞날을 좌우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이 기회에 중국의 새로운 소비자를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국시장이 점차 성숙되면서 우리기업의 대중국 진출 전략도 한층 성숙해져야만 한다는 말을 꼭 붙이고 싶다. **人間**



천진환 교수

1939년 생으로 연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북경대에서 국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99년 LG상사 고문을 끝으로 기업현장을 떠나기까지 LG상사 사장, 중국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 외에도駐칠레대사관 명예총영사, 한·폴란드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연세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인천대 중국학연구소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11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우덕 한국경제신문 국제전문기자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졸업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 석사 / 中 상하이화동사범대 경제학 박사 / 1989년 한국경제신문 입사, 국제부, 정치부, 정보통신부 기자 / 한국경제신문 베이징 특파원, 상하이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차장
(저서) 뉴 차이나 그들의 속도로 가라, 상하이 리포트, 뉴 차이나리더 후진타오(역), 중국의 13억 경제학 외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라 중국특파원 7년을 마치고 본 차이나 러시 15년!

1476회 11월 2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13억 인구가 만들어낸 중국 경제규모는 세계 4~5위를 다투고 있다. 중국제품이 세계 편의점을 장악했는가 하면, 그들은 한 해 수백 대의 보잉기를 사들이기도 한다. 세계 모든 기업은 이제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할 처지다.

중국의 발전속도는 놀라울 정도다. 그들은 후발주자의 이점을 활용,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도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그 속도와 크기가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중국은 초특급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그런 중국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급성장한 중국이 세계 정치, 경제구도에 어떤 파괴력을 몰고 올지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개혁, 개방정책 이후 28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사회 등 각 방면에서 서서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시아 지역에 또 다른 경제대국이 등장했으며, 그로 인해 아시아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경제신문 중국 특파원으로서 7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제부로 돌아온 한우덕 국제전문기자를 초빙하여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과 향후 성장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고, 중국의 경제성장을 '달리는 호랑이'에 비유하고 우리가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란 그의 주장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우쯔 라이프(Utz Reiff)
영국 라이프컨설팅 회장

日 조치대학(Sophia University) 경영학과 졸업 / 美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국제경영 및 국제마케팅과정 수료 / 日 Pacific Institute 설립자 및 대표 / 英 Pan-Net 대표 / 국제리더십, 조직개발, 내적리더십, 동기부여 전문가 / 국제청년회의소(JCI) 의원 / 英 햄스테드 로터리클럽 회장 / 英 왕립 자연과학학회 특별회원 / 국제스카우트연맹 고문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10가지 전략

1477회 11월 9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경 없는 범세계적인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최근의 글로벌화는 급속한 진전을 보여왔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환경 여건상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유능한 리더가 최고의 경쟁우위 원천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인재발굴 및 인재육성이 절실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의 필요성이 전략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발전(Progress)'이라고 주장하던 세계적인 기업 GE는 리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기간 리더십 자질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왔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최고 경영자들은 자사의 미래 리더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은 미래의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경쟁우위 원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사업전략과 긴밀한 연계 하에 투자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국내기업의 경우에도 글로벌 경영에 있어 리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인재육성시스템과 사업전략을 하나로 연결하지 못한 데서 오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사례가 많아 보다 전략적인 인재육성 방안이 요구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독일인으로 일본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라이프컨설팅을 운영하며 국제리더십 및 조직개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우쯔 라이프 회장을 초빙하여 그가 주장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10가지 전략을 들어보고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럴드 수 (Gerald C Hsu)
홍콩 브로드 미디어 코퍼레이션 회장

美 아이오와대학 기계공학 박사, 응용수학 학사 / 1982~1988 실리콘밸리에 PC하드웨어와 CAD소프트웨어 회사 설립 운영 / 1988~1991 선 마이크로 시스템 그래픽 소프트웨어 이사, 전략영업팀 이사, 1400억 매출달성 / 1991~1994 IC디자인 회사 Cadence디자인시스템 사장, 2500억 매출관리 / 1994~2002 EDA 회사 Avant! 사장, 회장. 2002년 1.2조에 매도 및 합병 / 2000~2002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높은 연봉 CEO 선정, 웰스트리트 선정 아시아계 미국인 IT회사 중 최고운영자 / 한국 독립법인 Eclair Group 회장, Cynthia Technology Korea 회장

기업가 정신과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1478회 11월 16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이미 그의 수많은 저서들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기업가 정신이란 변화를 직시하고 도전과 혁신마인드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회사의 수명이 짧아지는 시대에서 경영자는 이제 회사를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60년대 말 단돈 700달러를 가지고 대만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실리콘밸리 IT기업의 경영신화를 일군 제럴드 수 브로드 미디어 코퍼레이션 회장은 이런 의미에서 남다른 기업가 정신을 보여준다. 수 회장은 일에 대한 애착과 열정으로 아시아인도 서양에서 능력있는 CEO가 될 수 있고 우량기업을 만들어 이미지와 신분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다. 그는 1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하는가 하면 30년 이상 하루 평균 16~17시간을 근무, 주당 100~110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도 했다.

수 회장은 진정한 리더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read) 이끌(lead) 파워가 나온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적 매력이란 개인적으로든 비즈니스 파트너든 상대방에 맞춰 천의 가면을 마음대로 바꿔 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이 곧 그의 기업가 정신이며,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인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인내와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공한 한편 기부금과 장학금 수여 등 사회공헌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제럴드 수 회장을 초빙하여 그만의 커리어관리법과 경영노하우,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허운나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 / 美 플로리다주립대 문헌정보학 석사 / 美 플로리다주립대 교육공학 박사 /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 한국교육공학회 회장 / 한국산업교육학회 회장 / 대통령자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 제16대 국회의원 / 국제IT의원연맹(IPAIT) 초대회장 / 세계대학총장포럼(IFUP-ICT) 의장 / 통일·북한 정보화추진 전문위원회 위원장 / (사)한국유비쿼터스 농어촌포럼 공동의장 <상훈> 한국능률협회 특별공로상, 제22회 프리아다쉬니 IT교육부문 글로벌 어워드 외 <저서> 정보공학과 교육, 정보시대와 미국의 교육혁명, 내 품에 안긴 세계 외

유비쿼터스시대 이런 리더십을 가져라

1479회 11월 23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2006년도의 화두는 지식이다. 이처럼 날로 커지는 지식의 중요성은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인재양성의 필요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보통신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주소를 설명하는 척도가 된다.

우리는 지금 유비쿼터스시대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졌지만 지식에 따른 양극화와 실업문제 등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국가적 차원의 아이디어 창출과 유비쿼터스를 주도할 리더십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개인적으로도 아름답고, 강하며, 부드럽고, 창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IT인재육성의 산실인 한국정보통신대학교 허운나 총장은 지난달 대전에서 열린 '세계IT대학총장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유비쿼터스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글로벌 IT인재를 보다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제22회 프리아다쉬니(PRIYADARSHNI) IT교육부문 글로벌 어워드를 수상한 허운나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을 초빙하여 유비쿼터스시대에 IT강국으로서 그 도약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비결과 그의 책제목처럼 '내 품에 세계를 품기' 위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그만의 리더십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세계도시 서울이 그리는 희망의 그림

1480회 11월 30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룸

도시는 이제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경쟁력 비교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도시의 경쟁력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 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고 있는 도시개발은 나라의 운명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중심 '서울'은 세계도시에 걸맞는 경쟁력이나 그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달 9일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관광객 1200만명 유치', '4대 권역별 산업벨트 조성', '한강르네상스',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공기질 개선' 등 5대 핵심프로젝트가 그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남은 임기 4년 동안 현재 27위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으로 그대로운 된다면 서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더불어 타당성과 효율성을 따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함께 생각하는 정책 실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취임 후 각종 정책추진에 고삐를 당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초빙하여 서울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반한 경쟁력 있는 세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오세훈 서울시 시장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법학 석·박사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숙명여대 법학과 겸임교수 / 美 예일대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환경운동연합 법률위원장 겸 상임집행위원 / 제16대 국회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정부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미래포럼 공동대표 / 한국노총 자문변호사 <상훈> 4년연속 시민단체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2000~2003) <저서> 가끔은 변호사도 울고 싶다, 우리는 실패에서 희망을 본다(공) 외

제1473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 10월 12일(목)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룸

동양화는 인격으로 그리는 그림, 예술혼으로 담아낸 천년신라의 꿈

박대성 한국화가



▶ 좌 : 백운(白雲) 종이에 먹 179x191 2006 / 우 : 불발함굴 종이에 수묵담채 236x143 2006

어렸을 적 불우한 환경은 치열했던 삶

그럴수록 그림이 아니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으로 그림에 몰두 ❁

태어나서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참 기가 막힌 삶을 볼 수 있었다. 어렸을 적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것은 치열한 삶이었다. 팔이 없었으니까. 내가 살던 동네는 집성촌이었는데, 동네를 벗어나면 거기서부터는 고난을 겪는 환경이었다. 바로 불구에 대한 놀림이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공부를 포기했다. 나갔다가하면 돌팔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명적일지도 모르지만,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이 집안 형님의 보살핌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 후부터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림만 그렸다.

경북 청도라는 두메산골에서 그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렸다. 내게 그 이상 편안한 것은 없었다. 나는 7km 떨어진 중학교에 다니며 겨우 졸업했다. 그러나 억지로 공부를 하다 보니 결국 고등학교는 진학을 포기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려면 대구로 가야하는데 도저히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고향을 떠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원서 내는 날 집안 어른들의 눈을 피해 일주일 동안 집을 나가 있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른들께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혼자 소도 치고 양도 먹이며 편하게 생활했다. 여름방학 때 친구들이 이름표를 달고 시골집으로 오는 모습을 보면 속이 많이 상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림이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는 종이도 상당히 귀해서 그저 겨우 신문지



떤 분이 오셔서 국전(國展)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해보라고 하셨다. 그러나 출품을 하려해도 절차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분이 경상북도 문화과에 찾아가 보라고 하셔서 갔지만 거기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출품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입선이 되었다. 그 때 나이가 23살이었다. 제가 국전 18기였는데, 18기에 29명이 입선했다. 그들의 배경을 봐도 홍익대와 서울대 등 내가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었던 곳이었다. 그런 배경에서 입선을 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뻐고, 집안에서 잔치를 할 정도였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저 병신이 소 뒷걸음질치다 쥐 잡은 격'이 아닌가 하는 화단의 냉소적인 말이 있었다. 그 때 독학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침 74년도에 대만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중국은 정황상 들어갈 수가 없었고, 제가 하던 분야가 동양화이기 때문에, 대만의 유명한 고궁 박물관이라는 곳에서 1년간 공부하게 되었다. 공부를 하면서 전람회도 열었다. 그런데 그것이 대만 미술계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 소식이 한국까지 전해졌고, 대구시 문화사업의 하나였던 동아매일화랑의 개막전을 내게 맡기게 되었다. 외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청년에게 개막전을 맡기자는 취지로 전시를 하게 된 것이다. 전람회 후에 신문 1면에 크게 기사가 나면서 유명해지게 되었고, 후원회도 생겼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전시장을 나갔더니, 화단의 한 대선배가 국전에 겨우 입선한 어린 청년이 전람회까지 한다는 것이 건방지다고 했다. 한국화단에서는 크게 놀라고 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들어서 75년도에 모든 후원회를 정리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제대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울 원서동에 올라와 사글세방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계속 국전에 출품했는데 낙선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구상한다고 했지만 한국화단과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3년 동안 낙선을 하다가 마침 삼성의 이병철 회장께서 준비하셨던 새로운 미전인 중앙미술대전에 출품하게 되었다. 제1회 대전에서는 대상은 없고 4개의 장려상이 나왔다. 제가 그 가운데 하나였다. 제2회 대전에서는 제가 대상을 받게 돼서 당시 화단에서는 이번이라고 했다. 그 이후로 유명해지게 된 것이다.

항상 남보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멍에처럼 지고 살아 자신을 재정비해야겠다는 다짐하고

10년마다 삶의 주기 바꾸기로 결심 ❁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저를 설명한 것은 독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이다. 저는 항상 남보다 50~60%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멍에처럼 지고 살았었는데, 대상을 받고나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어디를 가도 흠족하지 않은 인상들이었다. 그래서 다시 나를 정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80년대 초 도시를 떠나 팔당댐 근처의 봉안이라는 시골마을로 들어가 화실과 집을 지었다. 전화와 신문도 모두 끊었다. 자고 일어나면 주변의 모든 것이 그림의 좋은 소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암갤러리가 개관했다는 초청장을 받고 집사람과 함께 초대전에 갔는데, 정말 상상 밖이었다. 돌아오

를 얻어 그림을 그렸다.

**20대 초반 독학으로 등단해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기성 화단의 냉소적 반응에 괴리감 느껴** ❁

20살쯤 부산의 동아대학에서 주최하는 국제미술대전이라는 미술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시 나는 10호 정도를 놓고 그림을 그렸는데, 대전에서는 최소 50호를 놓고 그린다고 했다. 그래서 50호가 어느 정도냐고 물었더니, 시골 문짝 만한 크기라는 것이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기였다. 그래도 열심히 해서 그림을 출품했는데 입선을 하게 되었다. 그 때가 22살로 내 이름 석자가 대구 매일신문에 났다. 그 때 큰 감회를 받았고, 그 후로 어



▶ 상 : 천년신라의꿈-원융(圓融)의세계 종이에 먹 250x440 2006
하 : 한매(寒梅) 종이에 먹 40x50 2005

는 길에 죽기 전에 그런 크고 멋진 갤러리에서 꼭 한 번 전시하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불과 8년만에 그런 기회가 왔다. 그러나 꿈만 같은 기회였지만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40~60평 정도 되는 화랑에서만 전람회를 해왔었는데, 전체 650평이나 되는 호암갤러리에서 전람회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준비 기간도 1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때 나이가 43세였다. 세 달을 못하겠다고 버텼다. 그런데 갤러리 국장님께서 “43세면 대통령도 하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고 했다. 그 말을 듣고는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7~8개월 안에 650평을 메우려고 불철주야 전국을 돌아다니며 작업을 시작했다. 정말 그림 이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준비했다.

그 때 마침 지인의 소개로 다석 유영모(多夕 柳永模) 선생의 책을 읽었다. 그 분의 책을 읽으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분의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제 나름대로 삶을 숙고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다.

그 때 마침 중국이 개방되기 시작했는데, 중앙경제라는 신문이 창간되면서 중국화문기행을 연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여행은 총 2주간이었다. 88

년 9월쯤이었는데 북경은 아주 더운 여름이었다. 첫 여행지로 백두산을 갔는데, 그 사이에 열흘이 지나버렸다. 결국 비자를 위조해야할 상황이었는데 마침 독지가 한 분이 도와주셔서 중국인으로 위장해 우루무치라는 곳으로 시작해서 홍콩의 심양까지 3개월 동안 여행을 했다. 여행을 하면서 정말 지구 상에는 여러 삶의 형태들이 있음을 느꼈다.

중국 오지의 사람들은 정말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 어렸을 적 6.25때 형편과 같았다. 아열대 월남 변방 쪽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바나나를 먹다가 길에 버렸는데 아이들이 먹던 바나나를 주워 먹으려고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였다. 그렇게 처참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정말 축복 받은 삶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화풍을 시작해야겠다는 일념으로 10년마다 삶의 주기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친구들이 시골로 내려갈 때 저는 다시 서울이라는 도시로 올라와 평창동에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불편’이 창조를 낳는다 ❁

불편을 선택해 경주 내려가면서 정신적인 휴식과 자부심 가져

그런데 삶을 이렇게 저렇게 되돌아 봤을 때 무엇인가 자신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주를 택하게 되었다. 요즘은 삶이 편해서 스스로의 자만도 생기고, 모임도 많고 해서 필요 외의 시간도 많이 생기는 것이 맘에 걸리기 시작해서 경주로 내려간 것이다. 경주에 자그마한 화실을 구하고, 나의 마지막 삶을 결정 내보자 한 것이다.

그곳에서 제가 한 일은 첫째 과거로 돌아가 보자는 것이었다. 과거의 어려웠던 삶으로 돌아가 보자는 것이 목표였다. 텔레비전, 라디오도 없애고 화장실도 재래식으로 바꾸는 등 살아가는 일들도 실제 불편하게 바꾸었다. 저녁 무렵 촛불을 켜고 방안에 10여분 앉아있으면 어두웠던 주변이 환하게 변하고 무엇인가 신령스러운 기운이 방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낀다. 이런 것들을 느끼며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에게 맞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 생활이 6년째에 접어들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이럴 때마다 저는 ‘불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제가 어느 날 화단의 좋은 위치에 서있을 때, 아무 연고도 힘도 없는 제가 팔 하나 없이도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불편을 극복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불편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전기도 없애고 화장실도 불편했지만 그만큼 정신적인 휴식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때는 누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편리’에서 나온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제 종교가 가톨릭인데, 지금 살고 있는 경주 집에서 성당까지 도보로 1시간이 걸린다.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어쩌다 모임에 나가서 발언할 기회가 생기면 편리를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해로운가에 대해 말하곤 한다. 옛 성인들은 모두다 불편을 향해갔지, 편리를 향해가지 않았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불편 가운데서 창조가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불편을 추구하시면서 큰 업적을 남긴 성인이 누가 있는지가 되돌아보니 추사 김정희 선생이 계셨다. 부모님은 보고 싶지 않아도 추

사 그 분의 모든 것이라면 수집하고 있다. 추사 선생은 볼수록 가름을 할 수 없는 분이다. 중국의 최근 지도자인 모택동은 중국 최고의 국가주석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예술적으로 본다면 모택동의 필적은 중국을 흔들 정도의 명필이다. 그래서 그만한 예술혼으로 중국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추사 선생을 봐도 그렇다. 서예의 꽃은 초서(草書)와 예서(隸書)이다. 저는 어느 때에는 그림보다 서예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왜 일찍 이것을 몰랐을까 한다. 그래서 대학에 가면 아이들에게 서예를 가르킨다. 방법과 스승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현대미술에 대한 스스로의 의는 사라지면서 큰 변환기 겪어 천년역사의 불국사에서 내가 가야할 길 발견 *

50년 독학을 하면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른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경주에 들어가서 작품전을 하게 된 것이다. 되돌아보면 고되게 살아온 날들의 보람을 느낀다. 이제야 제가 그림이라는 것을 그린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다. 초년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누구든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료로 가르쳐주겠다고 결심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학생들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나 제도권은 이런 과정들을 놓쳤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이유는 세상이 너무나도 풍요로워서 그런 것 같다. 더욱이 요새 와서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휘감고 있다. 현대미술이 도대체 무엇이나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현대미술의 메카는 어디인가 하고 물으면 뉴욕의 '소호'라고 한다. 그래서 소호에 갔다.

소호 한가운데서 1년간 거주하면서 화실을 차렸다. 그러면서 대학을 다니고 청강을 해봐도 현대미술이 무엇이라고 정의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100년 넘은 아트학원을 만나서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다. 추상반, 드로잉반, 수채반을 신청해서 듣는데, 수채반 첫 시간 강사님이 중국인 2세라고 하셨다. 꽃도 놓고, 여자누드도 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저는 먹, 붓, 종이 이렇게 세 가지만 놓고 그림을 삼시간에 그렸다. 선생님이 쪽 학생들을 둘러보더니 저를 보고는 놀라서 고함을 지르셨다. 먹 하나만 가지고 표현한 것에 놀란 것이다. 그 후로 그곳을 나와 더 찾을 것도 없다는 판단 하에, 내 고향인 경주 특히 눈에 선한 불국사를 그리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불국사에 방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불국사에서의 첫날 잠이 오지 않았다. 경내를 돌아보니 파리한 것이 정말 꿈만 같았다. 아무나 불국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혼자 고요한 경내를 걸으며 달을 구경하니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그곳에서 제 그림의 큰 변환기가 왔다. 하나의 의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대에 살고, 현대를 잘 알기 때문에 현대미술인 것이지 특별한 해답이 없다. 그러다가 우

리의 천년역사가 숨쉬고 있는 불국사를 화폭에 담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국과 인도 여행을 해보아도, 이탈리아의 베니스부터 히말라야로 해서 태국까지 가보아도, 세상은 넓고도 오묘하며 삶의 형태는 천차만별이라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은 것 없이, 이제 내가 가야할 길만 보이는 것이었다.

이제야 불국사를 지은 김대성(金大成, 700~774)의 큰 교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느낀다. 불국사의 가람배치를 보면 동서로 되어있는데 무엇인가 큰 이상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불국사 창건의 큰 특징이 무엇이나 하면, 그 당시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동물을 많이 끌어 들었다. 현무(玄武), 주작(朱雀), 용(龍) 등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국사를 용이라는 길동무를 끌어들이고 그 위에 불국정토를 건설한 것이다. 제 나름대로 그것이 들어온 것이다.



▶ 법열(法悅) 종이에 석채, 흙, 먹 191x191cm (석굴암본존불)2006

왜 그러냐하면, 토함산이 깊은 산이 아닌데다 물 수량이 많지가 않다. 그런데 신라시대 대중들이 이곳에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물 걱정을 안 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김대성 재상께서 물과 함께 움직이는 용을 기초로 해서 불국사를 지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불국사의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정확하게 서쪽을 가리키고 있다. 동해로 향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다. 동쪽이 청운교, 서쪽이 백운교로 앞발, 뒷발이 된다. 그리고 그곳에 조그마한 배를 타고 다닐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연지도 있었다고 한다. 뱀이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꼬아리를 들고 있다. 불국사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가운데 회랑이 둘러쳐 있고 본전불을 중심으로 정확한 이상세계를 그려놓

고 있다. 그렇게 불국사를 그리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것은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김대성이라는 혼신이 와서 그려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95년도에 서울에서 경주 불국사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저는 불국사라고 하는 것을 혼신을 다해 작품으로 표현했다.

경영자들도 문화와 예술에 관심 가지고 정신세계 넓혀야 *

현재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문화와 예술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좀 더 세계적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숨 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저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것에는 굉장히 우수한 것이 많다. 오늘날 제가 이런 작품을 그린다는 것 자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선조들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전부 현대와 서양의 바람에 넘겨져 버렸다. 우리들의 것은 없다. 우리 것을 사랑하셔야 한다. 너무 물질주의에 흘러가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신세계는 날로 좋아질 것이다. 人間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 향상되는 것 중소기업 경쟁력이 바로 한국경제의 경쟁력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이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논리를 중소기업들이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이 살길이죠.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 키워지기 마련입니다.”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소기업문제를 살펴보면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바로 한국경제의 경쟁력이며,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 없이는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당면과제다.

이런 점에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문제 전문 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김인호 원장은 2004년 4월 이곳에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기관의 독립화를 선언했다. 어느 기관을 대변하는 연구가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에 집중하고자 함이었다.

김인호 원장은 그 동안 정부의 핵심요직을 두루 거치고 폭넓은 관직을 역임하는 등 지난 30여 년간 공직에서 다양한 활동과 업적을 남겼다. 특히 경제기획원에서 최장수 물가정책 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역사상 가장 안정된 물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정통경제관료로서의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경제수석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던 그는 IMF 경제위기 책임론에 휘말려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우리사회가 IMF를 통해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성해야한다고 했다.

글로벌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인식 및 전략이 필요하다. 김인호 원장을 만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방안과 함께 30년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나누어 본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김인호 원장

1942년 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회에 합격해 67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경제기획국장, 차관보, 대외경제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환경처 차관,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철도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그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주)와이즈인포넷 회장,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기관입니다. 원장님은 취임 후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연구원 틀을 갖추는데 주력해오셨는데요. 연구원 소개와 함께 취임 후 연구원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연구원이 중소기업 문제의 전문연구기관으로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틀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연구원의 연구성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 정부, 중소기업, 대기업, 일반 국민 등 수요자중심의 연구원을 지향하고자 노력했죠.

사실 중소기업이 고민하는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 연구원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종합연구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연구원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처방,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거나 중소기업의 국제화문제, 소상공인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이밖에도 중소기업들이 원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 의식, 제도,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민간연구소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기업환경을 못 견디고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로 연결은 되겠지만 국내 산업공동화나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업환경이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산업공동화와 관련해서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업구조가 변한다는 논리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구조가 1차산업 중심에서 2차산업으로 바뀌고 지금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동이 이루어졌죠. 이런 과정에서 재래산업, 제조업도 자연스럽게 변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탈공업화현상을 나쁜 의미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을 키우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이나 IT, BT, NT 등 고부가가치산업이 무작정 해외로 나가는 것은 문제이고, 이런 현상은 산업공동화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공동화현상을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현재 어느 쪽으로 진행되는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만일 탈공업화가 산업공동화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개방을 통해 국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 그 가운데서도 단순 기술과 값싼 노동력에 기댄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국제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것

인지 아니면 국내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생각한 도피성 진출인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가장 중점을 뒀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화에 앞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환경을 조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퇴출되는 논리를 기업들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해요. 다시 말해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이 살길이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개방화가 진전되어야 하죠. 그 다음은 중소기업 CEO들의 글로벌마인드를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대기업의 CEO나 임원들은 모두 글로벌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인들의 글로벌마인드는 상대적으로 약한 게 사실입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로 중국보다 인도를 블루오션 지역으로 주장하시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국은 이미 많은 기업이 진출해있기 때문에 추가진출보다는 기존 진출 기업이 지속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 진출 기업 중 절반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나 생각해요. 경쟁요소를 갖추고 진출한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단지 저임금 등 생산비용만 고려하고 진출한 기업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결정할 일입니다. 다만 저희는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요즘 인도의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까지 인도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진출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중국이 인도보다 세계의 주목을 더 많이 받고



▶ 지난 6월 호주에서 열린 중소기업국제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김인호 원장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기회가 많을 것으로 봐요. 인도는 민주주의 발달에 따른 정책 투명성과 깨끗한 회계제도를 갖춘 금융시장이 큰 장점이지요. 그렇다고 중국은 안 되니 인도로 가자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인도의 가능성에 주목하자는 거죠.

인도 진출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20년 이상 인도시장 노하우를 가진 네덜란드 협동조합 금융그룹인 라보뱅크와 손잡고 IT분야, 식품 및 농산물가공 분야에서 인도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내로 관심있는 중소기업들과 현지시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상생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는 거래관계와 협력관계가 존재합니다. 거래관계는 제로섬게임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입장에서 비싼 값으로 거래하면 판매자가, 싼값에 거래하면 구매자가 이득을 보는데 이는 기업 전체 매출이나 이익을 증가시키지는 못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은 대·중소기업관계에 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진 상생협력의 개념보다 거래관계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모순은 바로 잡아야죠. 진정한 상생협력관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부가가치, 상품, 기술 등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제로섬게임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나는 플러스섬게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이윤이 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원리인데,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도 국내에 적절한 중소기업이 없으면 해외에서 아웃소싱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국내 협력업체들의 기반이 이루



어져야 그 산업에서의 외국에 종속되는 관계를 피할 수 있죠. 협력은 서로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국내의 경제환경의 변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경제적인 필요와 동기에 의한 상생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200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국내 경제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전망에서 숫자개념은 큰 의미가 없지만 국내경제는 2006년 1분기를 정점으로 점진적 둔화세로 돌아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간 성장률이 4.7% 내외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한 마디로 금년보다 더 어렵다고 봐요. 우선 세계경제가 조정기에 들어가 있어 내년도 우리 경제에 압박을 가하면서 경기둔화 국면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수침체 장기화와 수출둔화가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는 내외적으로 모두 어려운 환경에 처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는 내년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3.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나쁜 요인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경제 과열성장 지속, 유가안정 및 반도체 가격상승, 건설경기 회복 가능성 등은 플러스 요인이죠. 그런데 이러한 전망은 북한의 핵실험이 있기 전의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괜찮지만 경제주체들이 불안의식을 느끼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장님께서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민간 연구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간 기억에 남거나 보람된 일도 많으셨을텐데요.

어떤 자리에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고 보다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국경제에 3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첫째는 1990년부터 대외경제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한 각종 국제문제의 실무책임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가 경쟁적 구조를 만들어야 경쟁력이 생기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화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1993년 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경제를 보다 소비자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장한 것이 소비자 및 수요자중심의 경제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예컨대 교육정책은 학교가 아닌 학생을 보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1996년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해 경쟁정책의 책임을 지면서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는 상호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985년부터 88년까지 만 3년 동안 경제기획원의 최장수 물가정책장으로 재직하면서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오늘날과 같은 소비자 보호체제를 확립한 것은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결국 공직을 통해 제 나름의 경제적 사상이나 철학을 정립해 나가면서 그에 맞는 보직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1997년에 시작된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론에 휘말리기도 하셨는데요. 그 시기를 회고하면서 아쉬운 점은 없으신지요.

공직에 있다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라는 것은 행정적, 도덕적 책임이지 법률적, 형사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어느 누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려고 하겠습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외환부족의 형태로 위기가 조성될 줄은 몰랐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전에 공직을 떠났지만 그 후부터 이에 대한 책임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5년 5월 일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물론 국가가 형사보상결정을 내림으로써 7년이라는 사법사상 최장의 재판기록을 세울 모든 사법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IMF 경제위기라는 비싼 비용을 치르고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IMF 경제위기를 제대로 반성하고, 철저히 규명해 대책을 세우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토론과 연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 2001년 KBS교향악단 신년음악회에서 아마추어에 의한 최초의 특별지휘를 함으로써 화제가 됐었는데요. 취미생활 좀 소개해 주시죠.

평소에 음악을 즐겨 듣습니다. 집에서 여유시간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차 안에서도 주로 음악을 듣죠. 독서를 하거나 원고를 쓸 때도 음악을 들으면 오히려 정신이 집중되고 능률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우리사회의 리더,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균형감각입니다. 균형적 사고가 결여된 전문성, 일에 대한 집념은 때로 독선과 아집,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 과중한 업무에서 오는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남에 대한 이해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마음이 균형적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2001년 2월 2일, KBS 홀에서 있었던 KBS교향악단 특별연주회는 말 그대로 특별한 연주회였습니다. 아마추어로서 차이코프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지휘했는데, KBS교향악단 5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아시다시피 KBS교향악단은 우리나라 최고의 교향악단입니다. 그러니 언론에서도 제가 아마추어로서 지휘를 하게 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며 뉴스로 크게 다루었습니다. 이 날 연주회는 KBS교향악단 역사상 가장 많은 청중이 모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반관객에 더해 주변의 지인들이 제가 지휘를 한다고 하니깐 더 큰 관심을 가진 거죠. 원래 이 연주회는 클래식 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특별이벤트로 마련되어 이후로도 아마추어 지휘자가 참여하는 연주회를 매년 개최하러던 계획이었는데, 그 이후 실현되지 않고 있어 아쉽습니다.

선친께서 목회활동을 하시며 초기 농촌교회운동을 주도했을 만큼

절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신 것으로 압니다. 원장님 삶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요.

IMF 경제위기 책임론으로 4개월 정도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많은 고생을 했죠. 하지만 그 기회를 통해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고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때 세계 신앙이 없었다면 그 큰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당시 교도관들이 저를 보고 수감생활을 가장 못 견딜 것 같은 사람으로 분류했다가 나중에는 가장 잘 견딘 사람으로 평가했다고 해요. 저는 형사적으로 책임질 의미의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오히려 그 생활을 즐길 정도로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독서하고 운동하며 몸을 관리했죠. 이런 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모두 신앙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KBS교향악단 특별연주회에서 지휘하고 있는 김인호 원장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31주년을 맞았습니다. 원장님께서도 강사로 참여하시는 등 연구원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초찬세미나를 비롯해 공직에 있을 때부터 인간개발 연구원에서 여러 번 강연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연구원 같은 기관을 이끌어 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 과거 강연 때 접했던 것보다 활동영역이 다양해진 지금의 연구원을 보고 있으면 장 회장님의 선견지명에 존경심이 앞섭니다. 결국 문제는 '사람의 문제'로 돌아가는데 장 회장님의 탁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체질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도 글로벌마인드를 함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강화된 교육활동을 펼친다면 더욱 발전된 기관상을 정립하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원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상생의 파트너십으로 창조적 세계 열어가는 제이스텝

성평건 제이스텝(주) 회장

■ 삼성 30년은 노력과 행운의 시절

1965년 부산대학교 공대 화공과를 졸업하고 삼성그룹에 입사하여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45세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삼성석유화학, 삼성중합화학, 삼성BP화학 등의 사장으로 7년여 근무했다. 그 당시를 회고해 볼 때 가장 보람된 일은 필자가 삼성전자 D-RAM반도체 기흥공장의 초대사업본부장으로 있었던 1983년 8월부터 1985년 7월까지 약 2년여에 걸친 공장 건설과 초창기 생산시절이었다.

지금은 기흥이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단지이지만 1983년의 기흥은 잡초와 잡목만이 무성한 야산에 불과했다. 당시 故 호암 이병철 회장이 본인에게 내린 지시는 “6개월 내에 공장건설을 완료하라”는 것이었다. 야산을 깎아 첨단 반도체 공장으로 가동하기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은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에 가까운 공사 기간이었다. 그러나 반도체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으로 반도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삼성으로서는 공

사기간 단축이 절대절명의 과제였다. 기공한 지 6개월 만인 1984년 3월말에 공장은 계획대로 준공됐다.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공업체와 삼성전자의 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24시간 공사를 강행한 덕분이었다.

호암은 1983년 8월 반도체사업을 시작하여 4년



성평건 회장

1942년 생으로 부산대 화공과를 졸업했다. 삼성그룹에서 30년간 근무했던 성 회장은 삼성석유화학, 삼성중합화학 등의 사장을 역임했다. '생명과 파동공명의 원리'를 세계 최초로 발표한 성 회장은 레민다 파동육각수(www.remindawater.com)를 개발해 현재 사업에 이르고 있다. 계간지 <힐링 프론티어> 발행인으로도 활동 중이다.

후인 1987년 11월 19일에 유명을 달리했지만 그의 필생의 사업은 이견희 회장이 더욱 발전시켜 부동의 세계 1위로 우뚝 서게 되었다. 삼성의 반도체사업 초기 절대절명의 과제인 공장 준공을 단기간에 이뤄내고 반도체 시험 생산을 하는 등 초대사업본부장을 지낸 2년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람있는 일로 남아 있다. 비록 호암이 살아 계실 때에는 엄청난 적자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늘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위상을 생각하면 호암의 직관은 놀랍기만 하다. 호암이 공장을 1개월에 한 두 차례씩 방문하여 자세하게 지도해주시고 반도체 사업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 주면서 격려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호암은 그의 자서전에서 필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당시의 일을 인정해주셨다. 호암이 타계한 지 벌써 19년째이지만 삼성을 떠난 후에도 매년 그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생전에 베풀어주신 그의 따뜻한 지도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있다.

■ 본인이 중심이 되는 30년은 창조성이 key-word, 생명과 파동공명의 원리 발표하다

1994년 6월 삼성을 떠나 창업을 결심할 때 인간의 창조성을 형태화하고 행복을 공유하는 세계를 앞당기는 것을 사업의 비전으로 생각하고 레민다 파동육각수 사업과 인터넷 교육사업을 시작했다. 인터넷 교육사업은 1995년 ISIS(주)라는 사명을 걸고 100대의 컴퓨터를 갖추고 최초의 인터넷 교육을 시작했으나 3년여만에 IMF위기로 문을 닫아야 했던 불운도 있었다.

레민다 파동육각수 사업은 필자의 오랜 현장경험에서 나왔다. 필자는 오랜 현장경험을 통해 무생물인 기계장치도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왔다. 이 가설을 공장실험 등을 거쳐 1975년 7월 7일 세계 최초로 발표한 이론이 “생명과 파동공명의 원리(Life and wave resonance theory)”이다. 이 원리는 한국, 일본, 미국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원리의 핵심은 기계나 돌에도 생명이 있고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각자가 생명체라는 표시로 고유의 파동(波動)을 발산하며 동질의 파동끼리는 공명(共鳴)한다는 것이다.

■ S.C.B.E장치 개발로 레민다 파동육각수 생산, 좋은 물은 사람의 생명력을 회복시킨다

필자는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물을 파동화시키면 인간의 생명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원리를 응용한 파동육각수 개발장치 'S.C.B.E(super cosmic bio energizer)'를 개발하고, 경기도 양평의 3000평 부지 위에 300평의 양산설비를 1996년 10월에 준공했다. 레민다 파동육각수는 250m지하 암반수를 정제하고 S.C.B.E를 통과시켜 얻

어진다. 물이 S.C.B.E를 통과하면 육각구조로 바뀌고 육각수는 동시에 우주의 파동(波動)을 수신하여 파동육각수가 된다.

레민다 물은 체내에 흡수되면 세포와 세포사이, 분자와 분자사이의 미세한 부분에 반응하여 인체의 나쁜 유전적에너지와 노폐물을 정화하여 체외로 배출시킴으로써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힐링작용'을 갖는다.

물은 인간에게 기름보다도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환경오염 등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고 있어 좋은 물은 인간에게 더욱 귀중하고 필수적이다. 레민다 물의 효능을 인정받아 고객이 늘어나면 국내외 어느 곳에서나 S.C.B.E를 설치해 그 지역의 물로써 레민다 물을 생산할 수 있다. 레민다 물은 현재 대리점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2, 3의 국내 물 공장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1차 진출대상으로 일본을 생각하고 있으며 국가에 구별 없이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이다.



레민다
파동육각수
제조장치
S.C.B.E

레민다 파동육각수의 혼합과 파동설계에 의한 상품의 파동 -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과학적 혁명이 비즈니스를 혁신할 것

파동이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과학적 혁명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믿고, 파동 기술을 응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파동의 원리를 상품에 적용하는 것은 레민다 물을 혼합시키거나 파동설계를 부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물을 혼합시킬 필요가 있는 상품이나 산업에 레민다 물을 아래와 같이 응용하면 힐링작용이 추가되어 효능, 품질 등이 상승되어 고부가가치의 힐링상품이 탄생한다.

- ▶ 생활용품 : 화장품, 비누, 치약, 샴푸 등
- ▶ 건강음료 및 신약의 제조
- ▶ 농업, 축산업, 수산업 : 맛, 육질, 성장의 개선 및 증진
- ▶ 산업체의 응용 : 연료효율의 상승 등

한편 전자제품, 각종 공산품, 의복, 시계, 액세서리, 구두, 핸드백 및 각종 생활용품 등에 고유한 패턴의 파동설계를 부착하면 우주 에너지와 공명하여 사용하는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

21세기 새로운 철학

M(money)-M(mind)-C(company)-C(cosmos)

필자는 새로운 비즈니스는 새로운 철학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M-M-C-C라는 철학을 창안하였다. M-M-C-C의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돈(money)이란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즐거움과 사랑을 베푸는 마음(mind)에 따라 흐르고 회사(company)는 우주(cosmos)의 철학 즉 회사가 인류와 사회에 도움이 되면 발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하게 된다.

좋은 철학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비즈니스 및 정치가 영위되어야 밝은 미래가 열린다고 믿고 있으므로 이 철학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가 제이스템(주)이다. J-STEP은 기존의 서비스(service), 기술(technology), 에너지(energy)와 상품(product)을 인간의 창조성에 의해 획기적으로 발전(jump)시킨다는 뜻이다. 필자는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기초가 되리라 믿어 아마오라(Amaora)연구원을 금년 7월 개설하고 교육사업을 펼칠 준비를 연내로 완료할 것이다.

뜻있는 기업인들과 협력(Collaboration)하여 세계 속으로 뻗어 가게 할 것

현재 한반도는 북핵 등의 문제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지만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을 세계 속으로 이끄는 힘은 창조적인 기술로 무장한 창조적 회사가 담당할 것이다. 필자가 창업한지 12년이 지나갔지만 사업의 초창기에 겪었던 시련과 고통은 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제이스템은 독창적으로 개발된 레민다 파동육각수 제조기술 및 각종 파동기술 등 폭넓게 응용될 수 있는 노하우와 아이디어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이에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미래에 대해 마음을 열고 즐겁게 도전하고 싶은 기업인들과 협력하여 상생(相生)의 파트너십으로 창조적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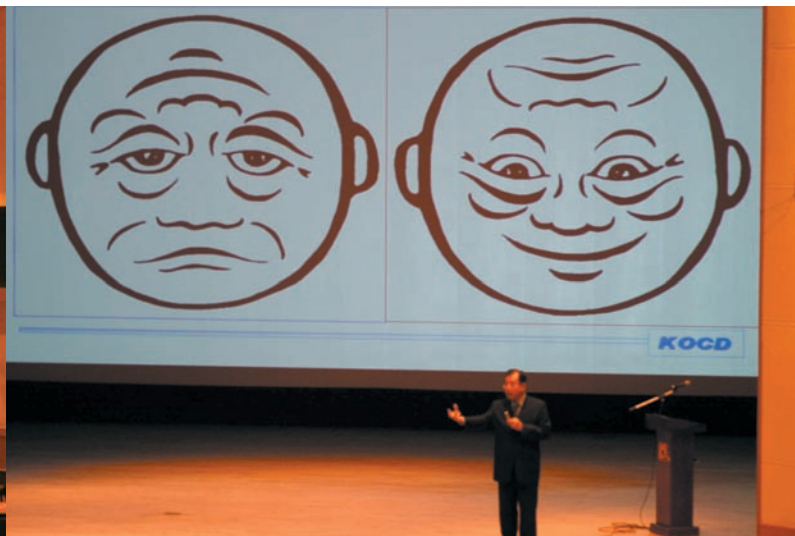


▶ 레민다 양평공장입구

제53회 전남 무안군 '황토골 자치마당' 9월 28일(목)

앞서가려면 변화를 주도하라!

최승훈 한국조직문화연구소 소장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민선 4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2000년 개강해 매월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전남 무안군(군수 서삼석)의 '황토골 자치마당'은 '전남번지, 아시아의 관문 새 무안시대'라는 비전달성을 위한 학습모임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무한경쟁시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새 무안시대를 앞당기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연을 통해 공직자 및 지역주민의 소양함양과 지적 부가 가치를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9월 28일 "앞서가려면 변화를 주도하라!"를 주제로 제53회 강연을 해주신 최승훈 소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사람의 웃는 얼굴에는 80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옛말에 '한 번 찡그리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혁신, 별거 아니거든요. 어두운 얼굴을 밝은 얼굴로 바꾸는 것도 혁신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듣기 좋은 소리로 바꾸는 것도 혁신입니다.

저는 절대로 노동(勞動)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동에서 '노'자는 '힘쓸 勞'입니다. 힘을 쓴다는 것이니 힘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꾸자는 겁니다. '樂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일을 즐기자는 거죠. 공직을 즐기고 혁신을 즐기고, 삶을 즐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질도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살율이 OECD국가 중 1위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물론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눈으로 봤어요. 포기하는 쪽에서 봤으니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제가 두 글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 - 살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삶을 보셨습니까. 죽는 쪽에서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점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일은 즐겁다고 생각하고, 이웃간에는 따뜻한 마음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혁신입니다.

혁신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impossible'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관점을 바꾸면 'I'm possible(아이 퍼서블)' 나는 할 수 있다가 됩니다. 생각에 따라서,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면 'Nowhere' 아무 데도 없다고 대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시 관점을 조금 달리했더니 'Now here' 여기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좌우한다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세우는 경우가 참 어려운데, 영국의 한 광장에 살아있는 비너스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 분은 온전한 신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리가 아주 짧고 양팔이 없습니다. 영국의 엘리스 래퍼라는 구족 화가입니다. 최근 한국을 다녀간 그녀는 장애를 극복한 자신의 삶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그녀의 예술세계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장애 때문에 불편하긴 해도 불행하진 않다면서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결국 그녀의 마음가짐이 오늘의 그녀를 만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신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병(病)을 어디에 숨길 것인가를 두고 오랜 시간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마음속에 숨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음관리만 잘 하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행동은 사고나 생각, 의식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결국 혁신의 시발은 우리 사고에 있는 겁니다.

저는 강연 때마다 '적자생존'을 이야기하는데,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뜻의 적자생존(適者生存)이 아니라 적는 사람만 생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사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 세 분의 공통점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외에 메모광이었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어우둥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천하에 바람둥이 여자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세종실록에 그녀의 행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큰 업적을 세운 것도 난중일기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독립 운동사를 연구할 때도 백범일지를 모르고는 연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잘 적는 사람이 좋은 혁신도 할 수 있습니다.

포항제철에는 '기성(技聖)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 공헌하는 사람에게 기성 명칭을 주는 제도죠. 그런데 어느 기성에게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랐냐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32년 동안 꼼꼼하게 메모한 덕분이라는 겁니다. 뭐든 적어야 사후 관리가 되고 나중에 교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현상과 대응

지금부터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화를 모르고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물은 흐르기 때문에 변화합니다. 흐르는 물이 멈추면 변화가 정지되고 물은 썩고 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프랑스의 미래학자 다니엘 벨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말만 빼고 다 변한다'고 했습니다. 14세기의 마키아벨리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사안일이라고 했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변화는 무슨..." 이런 생각들이 서서히 기업이나 개인을 위기에 빠트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화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미래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변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기가 오려면 으슬으슬 추워지기 시작하고, 비가 오려고 하면 일단 구름이 끼죠. 바로 이런 전조를 보고 바뀌려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쟁상황에서 살아갑니다. 기업간의 경쟁, 개인간의 경쟁, 국가간의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은 나쁜 것이 아니라 발전의 한 과정입니다. 경쟁을 하면서 긴장을 하게 되죠. 긴장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 한 장에도 자칫 손을 뻗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과도한 것도 문제지만 전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셋째,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리더가 아무리 변화, 개혁을 외쳐도 구성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물론 혼자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따르는 사람이 없죠. 인간은 부부라는 조직에 의해 태어나서 가족이라는 조직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혼자 살수는 없죠. 한 사람이 백보 전진하는 것보다 백 명이 일보 전진하는 것이 낫습니다.

넷째, 사전교육이 필요합니다. 기업현장에서 보면 신입사원을 뽑자마자 일손이 바쁘다고 곧바로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사고율이 높아지고, 신입사원들이 선배들에게 좋지 않은 편법만 배우게 됩니다. 못된 버릇만 기르게 되는 거죠.

다섯째, 어떤 위험이나 위기가 발생해도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지하 노래방에 화재가 나서 여러 사람이 출구 쪽에 엉켜서 질식사했다는 보도를 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때 어느 한 사람이 차례로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성적인 행동을 취했다더라면 작은 희생은 있었겠지만 대형 사고는 면했을 겁니다.

여섯째, 공동체 생활에서는 언제나 결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 시간 더 일한다고 해서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서로 눈치보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일곱째, 안전입니다. 모든 일에는 사전에 안전에 대한 포석(포석)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대형 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늘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앞장서는 겁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는데, 한 장관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세계적으로 훌륭한 평가가 있는데 한 수만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는 서랍에서 실 몇 가닥을 꺼내어 장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는 실을 바닥에 늘어뜨리고 뒤에서 밀어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구부러지고 말았겠죠. 이번에는 앞으로 당겨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은 당기는 쪽으로 똑바로 따라오게 됩니다. 공직자가 앞장서면 주민들이 따라오게 돼있습니다.

동물이 주는 교훈

독수리과에 속하는 솔개는 평균 4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이 되면 부리가 구부러져서 힘을 못 씁니다. 먹이를 찾는 데도 한계가 있고 발톱도 쓸모가 없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솔개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구조혁신을 단행하는 솔개가 있습니다. 바위 밑에 동지를 틀고 부리를 바위에 계속 부딪칩니다. 그러면 부리가 문드러지고 피로 물들지만 새로운 부리가 나옵니다. 발톱과 깃털도 뽑아내면 새 발톱과 새 깃털이 나오는데, 약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절한 구조혁신을 한 솔개는 하늘 높이 비상하면서 30년의 삶을 더 누리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변화는 급격하고 급진적입니다. 행정환경도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죠. 주민들의 요구수준도 높아졌어요. 이곳 무안도 예전에 10만이 넘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공항건설, 도청이전 등 성장잠재력이 풍부합니다.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무안은 새로운 동력이 될 만한 사업을 찾아야 합니다. 농업에만 의존해서는 더 큰 발전을 꾀할 수 없어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발전을 원하는 주민의 여망을 잘 결집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자원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오기 힘든 인적자원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이걸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무안을 창조하는 여러분의 과제를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변해야 합니다.

개구리는 15°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쾌적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온도가 45°로 올라가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혁신을 할 수 없어요. 부도나는 기업도 실직한 개인도 개구리처럼 변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다가왔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세계일류 회사로 성장한 삼성전자는 30년 전부터 위기관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늘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10년 후를 대비한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바꿔야 할까요.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중요한 패러다임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세기가 경제법칙이었다면 21세기는 문화법칙입니다. 경제법칙은 돈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돈주고 살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다 쓰러져가던 IBM을 살린 것은 문화였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나눔의 가치관이 문화법칙입니다.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조화로 가야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안간에 형제간에 조직원간에 서로 윈윈해야 합니다. 지능 지수의 잣대가 아닌 나눔과 협력의 공존지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창의의 두뇌로 일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땀 흘리며 열심히 일만 하는 재미마인드로는 안 돼요. 개미는 조직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죠. 누가 자료를 주거나 시키지 않으면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거미시대로 가야 합니다. 거미처럼 멀티플레이 능력을 길러야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거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첫머리의 'www'는

'world wide web'의 머리말입니다. 그리고 큰 조직이 아니라 좋은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행정마인드를 바꾸어야 합니다. 귀찮은 일 만들지 말고, 책임질 일 하지 말자는 것이 행정마인드라면 새로운 시도와 도전과 열정의 경영마인드, 혁신마인드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변해왔습니

다. 지식사회에서 지식이 모자라면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없어요. 우리나라 성인 평균 독서량이 1년에 10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고 하는데, 시간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출퇴근 시간만 활용해도 1년에 200권 이상 읽을 수 있어요. 독서는 눈으로만 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버려지는 이동시간에 귀로 독서 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변화주도의 프로세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듀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802년에 창업한 듀퐁이 지금도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변화감지(센서)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보다 시장을 선점(시간차 공격)했어요. 그리고 자기부정의 매카니즘입니다. 한 아이템을 3년이 지나면 갈아치웁니다. 신제품을 개발하겠다는 뜻이죠. 이것을 피터 드러커는 '기업은 매 3년마다 제품, 서비스, 경영방식, 기술 등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폐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정도 폐기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혁신적인 행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는 장애와 난관을 돌파해나갈 수 있는 변화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선 뭐든지 먼저 해야 합니다(기회선점의 경영). 유망정책을 조기에 발굴하자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때 해야 합니다(타이밍 경영).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서 가을에 수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유연한 경영입니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경영을 할 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변화 주도를 위한 혁신의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고의 혁신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목표의 혁신입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셋째, 성과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목표라도 성과가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넷째, 능력의 혁신입니다. 목표달성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시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개발하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죠. 여섯째, 생활의 혁신입니다. 규칙적이며 절제된 생활이 삶의 질을 높여 줍니다. 일곱째, 관계혁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만 얻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고객의 마음을 얻으면 장사가 잘 되고, 주민의 마음을 얻으면 행정이 잘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힘이 나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잘 실행되려면 여러분이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어요.

세계로 미래로의 무안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작은 개선과 혁신이 결합하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무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人間**



최승훈 소장

1952년 생으로 연세대 산업교육학 석사를 취득하고 평생교육지도사, 경영지도사로 활동 중이다. 한국능률협회 전문위원, 한국평생학습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산업교육연합회 부회장, (주)셋넷월드 대표로 재직 중이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등에서 초빙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가난은 부(富)의 원천(源泉)이 될 수 있다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天國)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가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첫마디에 쏟아낸 말이다. 마음은 인간이 지닌 창조력의 샘이다. 부처님의 一切唯心造(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란 명언도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이 그 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마지막에 돌아갈 영원한 낙원을 뜻한다. 질병도 미움도 배고픔도 목마름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이상향(유토피아)이 바로 하늘나라일 것이다. 보다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심(물욕), 남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권력욕망,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명예욕망, 욕정을 마음껏 누려보고 싶은 쾌락욕망, 세상을 풍미하는 유행을 따르고 싶어하는 욕망 등 이른바 세속적 욕망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창조의 샘인 마음은 아둔해져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부자가 3대를 넘기기 어렵다’, ‘권불 10년’이란 말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마태복음 5장 6~7절)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말이다. 권력, 금력, 명예, 쾌락, 유행 등 세속적 가치를 누리며 사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옳은 일을 위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며 세속적 가치들을 누릴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지나치지 않고 사랑의 정신으로 보살필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베품의 정신, 나눔의 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나 베푸는 사람들이 함께 상생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인류역사에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

인간개발연구원을 설립했을 당시 우리 창설자들은 인간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행복(Happiness) 3가지로 정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닌 이웃 즉,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기술(People Technology)이 바로 ‘평화’이다. 평화란 바른 인간관계의 산물이다. 가난을 피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극복해서 풍요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번영’이다. 세속적 가치들에 얽매인 욕심의 지배에서 벗어나 항시 마음을 비우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참 자기의 실현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다.

성서는 다시 말한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공자가 ‘하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영생하고 하늘의 뜻에 거슬러 사는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고 했듯이 모든 사람은 창조주를 근원으로 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주와 바른 관계를 맺고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때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금년에 노벨평화상과 서울평화상을 함께 수상한 방글라데시 출신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의 이야기가 매스컴의 화제가 되고 있다. ‘마을’이란 뜻의 그라민은행은 담보로 잡힐 것이 전혀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은행으로 1983년에 설립되었다. 유누스 박사는 1940년 지금은 방글라데시 땅인 옛 동벵골 치타공시에서 태어나 치타공 대학을 졸업하고 폴블라이트 장학금으로 미국 반더빌트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모교인 치타공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있던 그는 1976년 어느날, 대학 주변 시골마을 주민 42명에게 주머니돈 27달러를 빌려주는 것을 시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을 설립하고 온갖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마침내 오늘의 영예를 누리게 된 것이다. 2002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라는 제목으로 그가 저술한 책이 출판됐을 때는 필자에게 큰 감명과 함께 ‘빈곤극복’이란 인간개발의 미래과제를 일깨워 주기도 했다.

북한의 핵실험 결행으로 세계가 매우 시끄럽다. 유누스는 서울평화상 수상자로서 “북핵 이면에는 빈곤이 있다. 경제제재보다는 가난퇴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그가 전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빈곤문제를 북한 핵사건의 핵심적 과제로 보고 그 해결을 위해 뛰어 들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탈출을 더 어렵게 해주고 있다’고 갈파하는 유누스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 무이자대출을 해주고 자기의 힘으로 빈곤극복을 시도케 하여 성공하게 함으로써 인류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 주고 있다. 가난은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 풍요를 창조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번영의 원천이 되게 한다. 여기에 인간기술의 비밀이 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추구하는 평화, 번영, 행복 등의 가치들을 추구해 나감에 있어서 도전해야 할 과제는 빈곤, 자연의 파괴, 윤리와 도덕의 타락, 그리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교육문제 등이다. 이를 위해 인간개발연구원은 심층적으로 개발한 PT(People Technology)를 가지고 Better People Better World의 비전과 미션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그 가치를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다. **人間**





행복한 삶을 위한 웃음요가

김영식 한국웃음요가연구소 소장

행복한 삶과 행복지수

현대인들에게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당신은 왜 공부를 합니까? 당신은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면 80~90%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라는 대답을 한다고 한다. 그렇다. 인간은 신기루와도 같은 무지개를 찾아 떠나듯이 행복을 찾아 떠난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행복을 손에 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탄탄한 회사를 잘 꾸려가고 있는 K씨는 아름답고 상냥한 아내와 딸과 아이들을 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과는 달리 그는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부하직원에게도, 아내에게도 내색하지 않지만 늘 마음이 불안하다. K씨는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은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 가족은 물론 수십 명의 직원과 그 가족의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과 초조감이 항상 마음속에 내재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직원이 퇴근한 후에도 홀로 회사에 남아있는 날이 많다고 한다.



얼마 전 중소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즐거운 회사를 만들기 위한 웃음요가를 강의하러

갔는데 대부분 CEO들의 그늘진 얼굴과 굳어진 마음을 통해 우리 한국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최근 영국 신(新)경제재단이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호주 옆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누아투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233개국 중 207위이다. 2위는 콜롬비아, 3위는 코스타리카다. 반면 선진국의 대명사인 미국은 150위, 프랑스 129위, 캐나다 111위, 영국은 108위였다. 조사는 삶의 만족도와 평균수명, 생존에 필요한 면적과 에너지 소비량 등의 환경적인 여건 등을 종합해 산출한 것이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2위이다. 그래도 중간은 간 셈이다.

국내 S경제연구소 K 수석연구원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의 국민일수록 행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일수록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돼 행복지수는 낮아진다"고 분석했다고 한다. 결국 우리의 행복은 물질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과 삶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웃음요가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과연 몇 사람이나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김영식 소장

1967년 생. 전남대에서 체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영식 소장은 한국웃음요가의 창시자로 방송 및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에서 웃음요가를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암환자를 위한 웃음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김 소장은 한국웃음요가연구회 회장, (재)세계요가협회 상임이사, 국제웃음요가치료사과정 주임교수 등으로도 활동중이다.

수 있을까? 흔히들 강의를 하러 가면 “소장님은 늘 웃으니까 행복하시겠어요?”라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네. 매일 웃음과 함께 하면 우울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웃을 일이 없어서 웃지 못한다고 한다. 웃음은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존재한다. 웃음의 주인은 나 자신인 것이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고, 자주 웃으니 나의 에너지 장에 변화가 오고 얼굴이 바뀌니까 관상이 바뀌고 관상이 바뀌니까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얼마 전 국내의 모 암(癌)전문병원에서 ‘웃음꽃 피어날 때 희망의 날개를 달고’ 라는 웃음콘서트를 열었다. 유방암 환우들로 구성된 합창단과 통기타 가수와 함께 암 환우들을 대상으로 웃음특강을 했는데, 극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암 환우들도 웃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렇다! 내가 웃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저 태양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다. 감사야말로 행복의 전제조건이다.

나는 행복하다! 나를 통해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웃음을 찾았고, 한강으로 투신자살하려가던 사람이 TV방송에 나오는 나의 웃는 모습을 보고 발길을 돌려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웃음요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혼 직전의 가정이 웃음을 찾아 행복하게 살고 있고, 10여년간 웃음을 잃고 살아가던 이혼녀가 웃음을 찾아 행복하게 살고 있고, 암 환우들이 나의 강의를 듣기 위해 버스를 대절해서 오는 모습 등 수많은 행복한 장면들이 연출되는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행복한 나는 무엇의 결과일까

지금의 자기 모습을 만들어낸 수많은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아마 “야! 참 나는 대단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을 했다. 또한 13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 살림을 어머니와 꾸려나가야 했고, 남이 들으면 창피할 일들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했다. 대학 2학년 때, 17살의 어린 여동생을 백혈병으로 잃어야 했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삶을 포기하기도 했다. ROTC를 지원하여 장교로 군에 가면서 특전사를 선택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 차례 넘나들며 삶의 소중함을 배웠는데, 군 제대를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 27살의 형을 암으로 잃어야 했다.

이렇듯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로 많은 시간을 인간의 죽음에 대한 탐구를 해야 했다. 그리고 나를 치유하기 위해 판소리, 춤, 무술, 레크리에이션, 요가 등을 접하면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 것이다. 이제는 웃음요가를 만들어 세상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건강을 찾아주고 삶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는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웰빙(well-being)의 선두 주자였던 요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

를 일깨워 주었고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가져다주었다. 필자는 2005년에 “요가수련 참가 정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요가수련에 참가함으로써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결론인데, 이에 따라 신체적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정체감, 몰입감 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요가에 웃음과 한국적인 문화 즉, 신명(神明)을 결합한 웃음요가는 현대인들에게 행복감을 빠른 시간에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인기 있는 활동으로써 웃음요가가 웰빙의 대표적인 여가활동과 질병치유의 형태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도 웃음요가활동을 통해서 각종 스트레스로 지친 심신의 안정을 통한 총체적인 건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웃음요가수련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진 사람은 자아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가지며,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개인의 내적 동기에 의해 나타나는 몰입경험을 통해 자신의 깊은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신체적인 건강과 안녕감이 높아져서 행복감과 만족감이 증진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행복의 조건을 물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물질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불행에 가깝게 만든다. 순간을 영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이다. 웃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얼굴을 찾을 수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말이 바로 ‘하하하’이며, 꽃 중에 가장 시들지 않고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꽃이 ‘웃음꽃’인 것이다. 우리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음꽃을 피워 너와 나 우리가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人間)



회원&연구원소식



■ 회원소식

• **코리아나화장품(회장 유상옥)**은 10월 20일 서초동 사옥 앞마당에



이탈리아의 현대작가 조르지오 라베리의 2005년 작품인 '립스틱'을 설치했다. 이 조형물의 크기는 높이 1.7m로 코리아나 측은 "대표적인 화장품품 립스틱을 통해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의 욕구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설명하면서 "화장품 회사의 상징물로서, 또 인근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즐거움을 주는 예술 작품으로 '립스틱'을 설치했

다"고 밝혔다.

• **우먼타임스(대표이사 신숙희)**는 여성 친화적이며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6회 여성사랑 베스트기업대상' 시상식을 10월 20일 서울힐튼호텔에서 가졌다.

• **조수연(에프엠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회원은 지난 9월 사옥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다.

- 아 래 -

- 주 소 •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60-1
- 전 화 • • 02-3498-0801 / 팩 스 • • 02-3473-6965~6

• **정림건축(명예회장 김정철)**은 서울시와 한국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4회 서울사랑시민상 건축부문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장려상에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새병원, 청계천문화관,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연구동이 선정되었고, 리모델링 부문 장려상에 서울상공회의소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당선된 작품 전시회는 12월초에 있을 예정이다.

• **삼익THK(대표이사 부회장 심갑보)**는 11월 1일부터 4일간 대구 전 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7회 대구국제자동차기기전(DAMEX 2006)에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역의 한국OSG, (주)메트로닉스 등이 참여하고, 해외의 경우 한국NI(미국), 한국핵사곤메트놀로지(영국), 한국미쓰미, 미쓰도요(일본), 엠엔씨테크(대만), 레이저발코리아(이태리) 등 국내외 메이저업체들이 대거 참가하게 된다. 아울러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대만 등 총 25개국 300여 명의 해외바이어들이 참가하며, 총 관람객도 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박성훈(재능교육 회장)** 회원의 차녀 정은양의 결혼식이 지난 10월 20일 서울하얏트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홍승기(유리스투자자문 회장)** 회원의 차녀 보람양의 결혼식이 지난 10월 25일 삼성동 공향터미널예식장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서석홍(동선합섬 이사장)** 회원의 삼녀 진아양의 결혼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 11월 3일(금) 오후1시
- 장 소 • • GSE타워(구LG강남타워) 1층 아모리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원기 원풍물산(주) 회장**의 모친께서 지난 10월 20일(금)에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소모임 소식

• **이종기업동우회1그룹(회장 유상옥)**은 10월 모임을 일본의 아오모리 지역으로 부부동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오모리 지역의 단풍관광 및 온천욕 등으로 즐거운 일정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 **이종기업동우회3그룹-화목회(회장 황석희)**는 지난 9월 모임으로



청평 양수발전소 야유회를 부부동반으로 다녀왔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며, 10월 정기모임으로 지난 10월 17일 동대입구의 풀향기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 **이종기업동우회4그룹-인목회(회장 김정배 / 총무 한종덕)**는 제 47차 모임을 지난 10월 25일 김향순 교차로 회장님을 모시고 'CEO의 이미지관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차이나클럽(회장 홍순영 / 사무총장 이두호)**은 지난 9월 1일~5일

까지 '한중경제협력대표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길림지역을 다녀온 후 10월 2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10월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대표단 단원을 비롯하여 여러 회원들이 함께 한 이날 모임에서는 정문호 동국산업 부회장께서 '기업인이 본 동북3성 박람회 참관의견'에 대해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경회(회장 이심 / 총무 윤건우)는 지난 10월 24일 한양cc에서 월례경기를 가졌습니다.

•YCF(회장 김상래 / 총무 전병문)는 11월 정기모임을 아래와 같이 준비합니다. 금번 모임에서는 <빵굽는 CEO>(김영사)의 저자이신 김영모 김영모과자점 대표를 모시고 빵과 크리스마스 쿠키를 직접 구워보는 체험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YCF 회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안 내 -

- 일 시 • 11월 28일(월) 오후7시
- 장 소 • 서초동 김영모과자점

•지중해클럽(회장 박돈서 / 별유사 김순영)에서는 10월 모임으로 가을문화답사를 강진과 광주비엔날레로 다녀왔습니다. 첫날 강진에서는 영광생가 관람, 청자문화제 행사관람, 마량항의 일몰 감상 등의 일정으로 이뤄졌으며, 둘째 날은 백련사, 다산초당 외 광주 비엔날레 등을 관람하는 짧지만 알찬 일정이었습니다.

■ 연구원소식

• 회원친선행사 '코엑스 나들이'

11월에는 회원친선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9월 21일 제1471회 경영자연구회 강사님으로 모셨던 정재관 한국코엑스 사장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초청해주신 정재관 한국코엑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일 시 : 11월 8일(수) 오전10시~오후2시

• 장 소 : 삼성동 코엑스

• 참가대상 : 본 연구원 정회원 선착순 20명

(1471회 경영자연구회 참석회원 우선접수)

• 내 용

10:00 아쿠아리움 관람

국내 최초 터널형 구조로 설계된 국내최대의 테마 형 해양수족관

11:30 공연 : 클래식기타의 세계 - 기타 앙상블 '피에스트' 공연관람

12:30 점심

13:30 코엑스 내 시설 견학 및 당일 전시회 관람 후 마침

• 신청 및 문의 • 회원부 정성숙 대리 • 02-445-1948

■ 신규회원



이상호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사장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6-2

· 전 화 : 02-428-0914

· 팩 스 : 02-440-2091

· 업 종 : 전기안전검사 및 기술서비스

· 추천인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조연환 농협경제연구소 소장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267 임광B/D

· 전 화 : 02-2131-4500

· 팩 스 : 02-2131-4460

· 업 종 : 연구소

· 추천인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추천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자체소식

• 제2회 환경관리우수자치단체(그린시티) 수상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정책학회 등 4개 민간단체가 공동 주관한 제2회 환경관리우수자치단체(그린시티) 공모에서 담양군(군수 이정섭)과 제천시(시장 엄태영)가 국무총리상, 여수시(시장 오현섭)와 남해군(군수 하영제)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특히 남해군은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년 연속 환경시범지자체로 선정되고, 1999년 환경경영대상 수상과 함께 이번에 그린시티까지 지정돼 전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환경분야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주)신성월드	권오범 사장	11월 1일
(주)세원	김병춘 회장	11월 2일
(주)한일엔지니어링	이기군 사장	11월 3일
(주)비츠로그룹	장순상 회장	11월 8일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영희 회장	11월 10일
(주)덕성	이해성 사장	11월 10일
(주)코리아나화장품	유상옥 회장	11월 15일
(주)주택문화사	이 심 사장	11월 18일
에스엔케이폴리텍(주)	송재문 회장	11월 19일
로터스힐	최만식 회장	11월 26일
서울도시가스	배경운 회장	11월 28일

EPL74기 성공 특공대를 소개합니다!

EPL교육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퍼실리테이터, 수강생에 따라 10인10색의 성격을 띠는 점이다. 미녀 6총사에 청일점이 한 명 낀 74기 팀은 EPL의 그 같은 특징을 여지없이 보여 준다. 여성, 그것도 미녀로만 구성된 90% 아마조네스 반은 LMI사상 초유의 팀이란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 팀에는 보조-참관 코치가 3명이나 되는 등 교육지원까지 완벽한 구조다.

74기 수업이 있는 매주 금요일, 서로 나누는 인 사들로 복도까지 환하다. 모 수강생은 공부도 공부지만 “공주, 왕비 대접받으며 예쁘다는 말 듣는 맛에 수업이 있는 금요일이 즐겁다”고 말할 정도다.

그렇다고 이들이 퍼스널리더십의 습관화에 등한 시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엄마, 며느리, 아내, 교육강사, 대학원 학생 등 1인 5역, 6역으로 바쁜 이들이지만 꿈의 성취를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만 들어가며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다. 그런 만큼 꿈과 성취에 대한 열정도 눈부시다.

●●● 지연숙(심리상담사)씨는 “솔직히 EPL프로그램이 명품인 만큼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나는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프로그램을 듣게 됐다”고 밝힌다. 그는 수업교재를 들고 걸을 때도 “나는 이만큼 가치있는 사람이야”하고 뽐내며 걷게 되곤 한다고 털어놓는다.

●●● 전성신(산업강사)씨는 뛰어난 미모와 위트로 한 주의 피곤을 풀게 해주는 74기의 분위기 메이커다. 그녀는 그간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을 만큼 출석스코어가 좋아 개근상은 떴 놓은 당상. 소수인원이 모여 오붓하게 수업하는 만큼 빠진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아 74기 부흥의 사명을 띠고 출석하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그녀는 “무슨 리더십 프로그램이 이렇게 비싼가 하는 호기심에 듣게 됐다”가 EPL의 매력에 빠진 케이스다.

●●● 김태연씨 역시 산업강사로 전성신씨

와는 친구사이. 유유상종을 넘어 패션코드가 완전 일치, 때로는 의상 컨셉까지 100% 일치해 ‘진한 우정’을 내외에 과시하기도. “달라지고 있다기보다는 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합쳐지고 다니다 보니 늘 지쳤지요. 호기심과 가치의 영역을 구분, 절제를 배운 것, 그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김씨가 EPL을 통해 영성을 충만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고운서(부동산 사업가)씨는 지난 LMI행사 때 흰칠한 아들을 데리고 와 주위의 부러움을 산 바 있다. 그녀는 “교육내용도 내용이지만 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배운다”며 “아직까지만 지 안개 낀 기분이지만 조금씩 개이고는 있다”고 소감을 표명했다. 굿뉴스를 발표할 때 연로하신 시어머님의 병환을 걱정하며 눈시울을 적시는 그녀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다른 이들에게 늘 진정함 아름다움의 실천을 몸으로 보여준다.

●●● 안미영(변호사)씨는 부창부수 자기계발로 타인의 모델이 되는 케이스. 이번에도 남편이 권유해 신청하게 됐다고. 그녀의 팀 내 역할은 출석 권유반장. “소수 특공대인 만큼 그대 없는 빈자리가 너무 크다”며 출석을 중용하는 그녀의 설득에 74기 출석률은 늘 98%를 상회한다.

이들 미녀특공대에 낀 청일점은 양구욱(하이마트 교육팀장)씨. 웬만하면 기가 죽을 법도 하건만 늘 완벽한 숙제와 실천으로 가장 앞서가는 우등생이다.

●●● 74기 팀 FT를 맡고 있는 엄경애 LMI 사장은 “학습동아리보다는 작은 성장경험, 서로간에 팀코칭을 나누는 성공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며 “끝나는 날 자랑스럽게 성취의 축제를 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한다.

●●● 74기, 이들은 과연 어떤 꿈을 생생하게 꾸고 이를 것인가. 이들의 꿈을 향한 전진에 기대를 해도 좋을 듯하다.

———— 김성희 LMI 비전&리더십연구소 소장



■ 한국엘엠아이(주) 소식

- ‘효과적인 성과향상(EPP)’ 과정 개강
 - 일 시 : 10월 23일(월) 오전 10시~12시
 - 대 상 : (주)하도 임직원 13명
 - 장 소 : (주)하도 회의실

• 10월 31일(화) (주)하도 8명의 임직원이 로얄호텔에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리더십’ 수료식을 마쳤다.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_ 한국엘엠아이(주)
 - Tel. 02-2202-8700 / Fax. 02-445-2086
 - www.lmikorea.com

■ 한국엘엠아이 라이선시 Big Dream&Success 모임안내

• Big Dream & Success는 LMI 수료자들과 함께 지난 10월 22일~24일까지 2박 3일간 지리산 등산을 다녀왔다.

• 제37차 LMI 수료자모임이 11월 13일(월) 안국교육장에서 배우리 서울시 교통연수원 교수, 땅이름학회 명예회장을 모시고 “우리말에 스민 우리 얼”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안국동 교육장에서 KICKOFF 미팅을 갖는다.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 Tel. 02-774-3230 / www.whynotyou.co.kr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눈길을 돌리자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 숙명여대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초빙교수



있다면 무한경쟁시대에 지혜로운 일인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식사회는 여성의 섬세함과 창의성이 비교우위를 갖는다.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는 육체의 근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남성이 유리했다. 하지만 지식사회는 힘이 아니라 머리로 일하면서 소비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여성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숙명여대에 최초로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을 특성화대학으로 인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성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해 주기 위해서이다. 필자도 숙명여대 대학원에 초빙교수로 위촉을 받아 여성문제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먼타임스의 신속희 사장은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특강에서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다”며 남성들의 작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여성이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혼자만 져야하는 ‘슬픈 멍에’로 인식하는 한 저출산·고령화사회의 극복은 어렵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이 남성이 그 짐을 함께 분담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해진다고 한다. 특히 “자신의 딸이 어떤 대우를 받기 원하는지를 조용히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성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여성에게 맡기고, 여성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면 저출산·고령화의 고민도 선진국 진입도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작은 배려와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호소를 들으면서 “남성들이여, 조금만 시각을 바꾸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여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경영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여성인적자원개발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성도GL의 김상래 사장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도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겠다”는 조건을 약속하고 여직원을 뽑아 “여성들의 능력개발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성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생각하면서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하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키우는 일에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 남성의 인식전환과 함께 여성의 인식 역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여성이 보호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프로정신으로 무장할 때 소중한 인재로 환영받을 것이다. **人間**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구약성경 전도서에 나오는 말이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듯이 매사에 타이밍이란 게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데도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여성인력의 활용은 중요하다. 이제는 여성인력을 기업과 국가의 미래 비전과 경쟁력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추산되는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1.08명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주었다. 여기에는 원인이 있다. 사회구조가 바로 출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사회진출은 늘어났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경력의 단절이 불가피해진다. 이러다 보니 자녀보다는 일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아이를 많이 낳자고 캠페인을 벌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선진국처럼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경력 단절이 최소화되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여성인력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느 나라나 대부분의 남성들은 일을 한다. 그러나 여성노동력은 아직 캐내지 않은 광맥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5%인 반면 OECD 평균은 57.1%이다. 대부분 선진국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를 넘는다. OECD의 헤클링거 사무차장은 “스웨덴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는 출산율도 높다”고 말한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 저출산의 문제와 경쟁력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도 진화되어야 한다. 이제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북한은 결국 핵보유국이 될까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제재 결의

북한 핵실험 이후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북한이 세계 제9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결국에는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는 일단



확고하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뒤이어 한·미 정상간의 전화통화와 한·일, 한·중 그리고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각각 이를 재확인했다.

이례적으로 재빠르게 채택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역시 단호하다. 이 결의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강도 높은 외교적 경제적 제재조치를 단행기로 결정했다.

지구상에서 스스로 핵무기 또는 핵개발 계획을 폐기한 국가는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 등 3국이다. 과연 북한의 김정일은 이들의 선례를 따를 것인가? 북한 정권이 지난 10월 9일 핵실험 직후 발표한 외무성 성명을 읽어보면 그들이 결코 핵무기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 성명은 이번 핵실험 성공이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남시욱 교수

1938년 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국제신문연구소(IU)를 수료했다. 동아일보 편집국장, 논설실장, 상무이사 등을 거쳐 문화일보 사장을 지낸 언론인으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아시아신문재단 한국위원회 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고려대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세종대 석좌교수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

사변"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행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보리 결의도 물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즉각 발표했다.

핵무장으로 군사력 열세 만회하려는 북한

그러면 북한의 핵보유 의사는 왜 이처럼 완강할까. 강대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은 공통적인 일이지만 북한의 경우는 좀 더 실재적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남북한간에 경제력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김일성은 점차 재래식 무기를 개발·구입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다.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첨단무기를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이 얻은 해답이 핵무기 개발이었다.

김일성은 북한에 400만 톤에 달하는 양질의 우라늄광산을 보유한 데 착안해서 60년대에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한 다음 구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료를 도입하고 핵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면서 핵개발에 착수했다. 김일성이 추진한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술한 곡절을 겪은 끝에 40여 년만에 김정일의 손으로 성공을 이룩한 셈이다.

북한은 그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았으나 그 때마다 교묘한 수법으로 이를 피하면서 비밀 핵개발 계획을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1992년에는 남측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서명하고 93~94년의 1차 북핵 위기 때는 제네바의정서에 조인했지만 핵개발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결국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의 부시정권 출범 이후에 빚어진 2002년부터의 2차 위기 때는 6자회담에 응하면서도 필사적으로 핵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작년 2월에 드디어 핵보유를 선언하고 이번에 핵실험을 단행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을 일거에 바꾸어놓았다. 핵보유국인 북측과 비핵국가인 남측간의 새로운 비대칭적 군사관계가 이룩될 판이다. 김정일 측에서 본다면 1970년대 중반기 이후의 남북경제력 역전과 이에 따른 군사력의 열세를 핵개발 성공으로 만회할 계기를 잡은 셈이다. 북한 핵실험 이튿날 나온 조총련계의 조선신보 인터넷 판의 보도에 의하면 김정일은 "이제는 고생 끝에 낙을 보게 되었소. 우리에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던 말이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북의 핵 보유 저지해야

문제는 우리 국내 일부에서는 이 같은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외면하고 그들의 핵개발을 '대미 협상용'으로 보는 데 있다. 부시정권의 태도가 김정일에 대해 적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의 시대착오적인 폐쇄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침공의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에서는 북한이 미국 때문에 핵개발을 하는 것처럼 말해 왔다. 이로 인해 북핵문제를 북미 양자간의 문제라느니, 북핵 실험이 미국의 잘못에 기인한다느니 하고 '미국책임론'을 거론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애매한 태도도 한 몫을 했다.

노 대통령은 얼마 전에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보장받고 경제지원을 받으려는 '핵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 11월에는 미국 LA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한 다음 핵과 미사일을 자위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그의 안이한 대북관을 피력했다. 이런 지경이 되니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그 때마다 '증거가 없다' 느니 '정보가 없다' 느니 하고 소극적으로 대해 왔다.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북핵 대응태도는 '핵 불감증'과 '안보 불감증'을 부채질했다. 여기에서 북한측이 적반하장 격으로 남한 국민들도 북핵의 보호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역선전을 하고 국내의 친북세력들이 이에 동조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국민의 북핵 불감증은 심화되었다.

노 대통령의 대북핵 자세는 지난 9월 중순 워싱턴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차츰 바뀌어 "북한이 만일 핵실험을 한다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그의 태도는 막상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자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불러일으켜 대북 포괄정책을 재검토할 듯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단호한 입장은 '작심삼일'이 되고 말았다.

그는 한일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의 핵실험을 '불장난'이라고 말하면서 "당장 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느니, 심지어는 '작은 문제'라고 표현했다. 이어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반발을 보이지 않자 대북 포괄정책의 재검토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그대로 계속할 뜻을 표명했다. 말로는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환영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소극적이기 짝이 없다.

이제 남은 문제는 유엔안보리의 경제 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김정일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도록 하느냐에 달렸다. 관건은 국제사회가 얼마나 일치단결하느냐에 있다. 이번에는 중국도 쉽사리 그를 도울 수 없는 미묘한 입장이 되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의 직접적 피해자가 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하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그런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그러자면 우선 우리 정부 일각의 미온적인 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지 못한다. (人間)



투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남기열 동부증권(주) 본부장



북한의 핵실험 발표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로 동북아 정세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세계 부동산 버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과 중국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상황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정부도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부양책을 검토중이라는 뉴스도 나온다.

하지만 세계 증권시장만은 이와는 무관한 것 같다. 미국의 다우지수는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유럽과 아시아시장도 다우지수와 동조를 이루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 증시도 북핵실험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른 투자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꾸준히 주식 매수에 나서며 세계시장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 경기회복과 풍부한 유동성이 주가 상승의 견인차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의 흐름에 비추어 본다면 우선 침체의 어려움에 빠져 있던 일본과 유럽의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중국, 인도로 대표되는 신흥 강국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시장에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주식시장의 상승 동력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그 동안 강세를 보이던 세계 부동산 시장이 거품 논란에 주춤하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던 원유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 시장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 풍부한 유동성이 증권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시장의 질적 성장과 개인 자산운용 패러다임의 변화

또한 한국의 증권시장도 꾸준히 성장 발전하고 있다.

첫째, 시장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과거 증권시장은 한탕주의 위주의 단기 투기적 투자자에 의해 지배되고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적었으며, 상장기업의 투명성이 약했고 수익성도 미미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인 투자비중이 시가총액의 40%에 육박하고, 기관 및 연기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명성과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매출의 세계화로 기업의 신뢰도와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둘째, 개인 자산운용의 패턴이 변하고 있다. 과거 고금리 하에서 채권에 투자하고 가격 상승을 기대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며 많은 현금을 보유하던 투자 패턴에서 저금리와 고령화 현상으로 수익성과 환금성이 우수한 주식과 수익형 금융상품으로 개인의 자산 운용 패턴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현금 비중이 월등히 높은 개인들의 금융 자산 구성 비율로 볼 때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 의지도 한 몫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본시장 육성 의지는 시중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지금은 산업자금화 함으로써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8년 시행 예정인 가칭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 각종 제도정비에 나서고 있는 것도 선진국에 비해 열세인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기열 본부장

1958년 생으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우리증권에서 28년간 근무하는 동안 동교동지점장, 서소문지점장, 영업부장, 강북1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부증권 을지로지점에서 금융자산관리사로 활동 중이다.

지금이 주식투자의 적기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점이 투자에 적절한지 대해 궁금해한다. 다음 몇 가지 이유를 보면 주식이나 수익형 금융상품 투자가 미래투자의 추세로 보여진다. 첫째, 개인 자산운용의 세계적인 주된 흐름이다. 개인의 주식상품 운용은 선진국의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적립식 펀드와 변액보험 인기에 힘입어 국내 자산운용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2008년부터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장기 성장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둘째, 부동산, 원자재, 파생상품 등 모든 상품을 증권화하여 누구나 쉽게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다. 셋째, 저금리, 고령화시대에 고수익과 환금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투자는 가장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기다리는 것

그러면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하나. 종목 선택의 기준은 투자자의 위험 선호 성향이나 기대 수익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적절한 수익을 확보하며 위험이 적은 종목이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내가 중시하는 가장 보편적인 종목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시장에서 그 업종의 선도기업인가. 정보와 유통의 발달로 세계시장은 통합되고 업종 내 선도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선도기업의 성장 및 수익성이 추종기업에 비해 앞서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상품 또는 서비스인가. 담배, 도박, 주류업종 등과 같이 사람에게 해롭다고 인식되는 업종은 항상 그에 따른 투자 위험을 갖고 있다. 최근의 모 사행성 게임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했던 기업과 투자자가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지속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겸비하고 환금성을 갖고 있는 종목인가.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로 적절한 배당을 하여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넷째,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가.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과 같은 지표를 이용하여 시장 대비 또는 업종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판단한다.

다섯째, 경영자의 경영능력과 의지, 도덕성도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그 회사의 경영자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분석하고 종목을 선별하여 장기 투자한다면 큰 위험 없이 꾸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종합주가지수(KOSPI)

해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도 관심을 가져야

세계 금융시장의 업종간 지역간 장벽도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북핵 사태로 인한 한국 시장의 위험증대로 해외투자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실제로 해외시장의 다양한 금융상품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한국시장에서 해외시장의 모든 금융상품을 간접투자의 형태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선진국 펀드나 신흥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나 인도의 간접투자 상품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의 경제성장에도 관심을 갖고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되는 간접상품이 판매되거나 기획되고 있다.

시장의 흐름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하지만 직접 투자하기에는 종목분석 및 매매 타이밍 포착 능력이 부족하고, 간접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판매사와 운용사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면 전체 시황에 연동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인덱스 펀드는 해당 상품지수와 연동되어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지수의 움직임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기 때문이다. 'KOSPI 200'이나 IT업종 등 다양한 종류의 인덱스 펀드가 판매되고 있어 내가 자신있는 업종의 인덱스 펀드를 찾는다면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목돈마련은 적립식 증권저축으로

과거 고금리시대에는 목돈마련의 방법으로 은행의 적금이 유용한 수단인 때가 있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적금보다는 적립식 증권저축 또는 적립식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직장인이나 매달 일정 금액의 저축으로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방법이다. 직장에서는 기존의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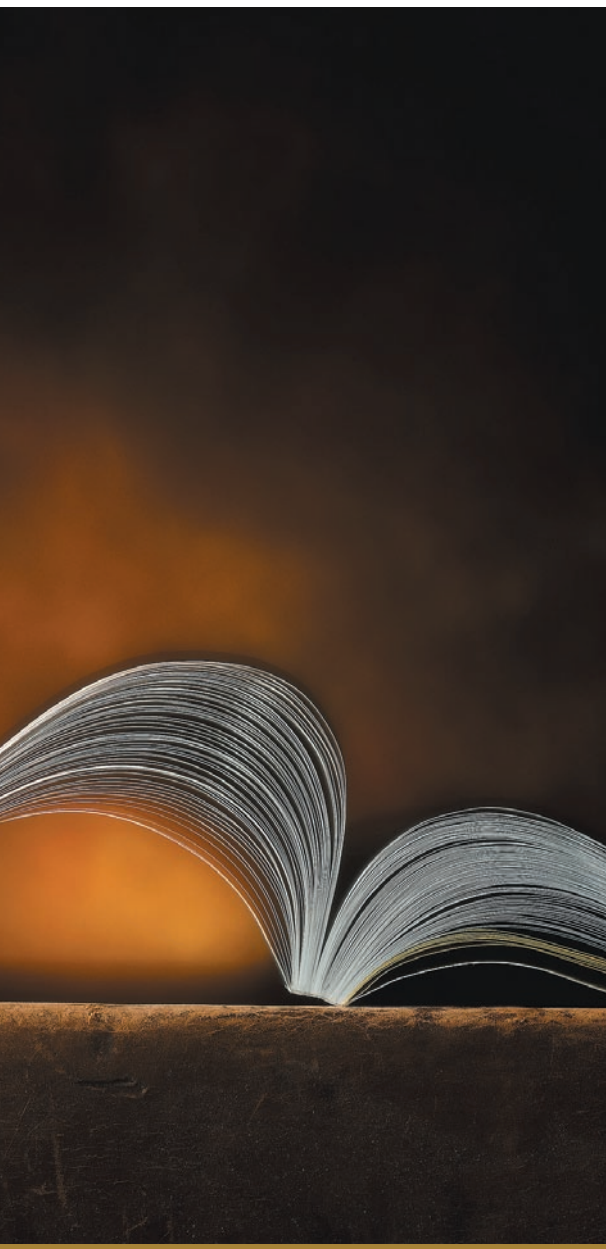
증권 시장은 가장 훌륭한 미래투자 기회

시장은 수많은 변수에 의해 기회와 위험이 상존하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고 투자는 미래 흐름을 예측하여 수익을 기대하는 경제활동이다. 따라서 미래의 시장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나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기업의 성장을 믿는다. 훌륭한 경영자와 훌륭한 국민성을 믿는다. 그리고 증권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미래의 가장 적절한 투자 기회라고 믿는다. **人間**

인문학의 위기론

조 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얼마 전, 전국의 인문학계 교수들이 이 나라 인문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면서, 당국의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요청에 따라, 교육부는 인문학 구제를 위한 지원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사실 문학, 역사학, 철학 등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작금에 시작된 일이 아니다. 작년 나는 서울대학의 어느 교수로부터 그 대학 국사학과 대학원 지원자가 어느 학기에는 전무했다는 말을 들었다. 서울대학에서 그 지경이라면, 우리나라 국사학은 거의 망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는가.

인문학은 모든 학문과 지성(知性)의 근본이며, 따라서 인문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의 학문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고 지성의 뿌리가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위기를 구제할 어떤 손쉬운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장학금의 지급, 교수 연구비 증액 등은 좋은 일이지는 하나, 이것만으로 인문학이 살아날 수는 없다.

원래 인문학이라는 것은 돈과 거리가 먼 분야이다. 이 분야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가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다만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 분야의 학자라도 생활걱정을 시키지는 않을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지나친 면이 있는 것 같다.

인문학 위기의 원인은 대학의 부실에 있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대학, 학과 및 학생이 너무 많은 것이다. 대학의 부실을 그대로 두고, 정부가 돈을 가지고 인문학을 추스른다는 것은 임시방편으로는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한다.

인문학 몰락의 보다 기본적 이유는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반지성적(反知性的)인 성향에 있다. 사람들은 한국처럼 교육열이 강한 나라가 어떻게 반지성적이 될 수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열이 강하다는 것은 학력(學歷)을 숭상하기 때문이지 지성을 존중하기 때문은 아니다. 교육열과 지성의 존중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사실 한국인의 교육열이 거의 병적으로 강하다는 것 자체가 반지성적인 심리라 할 수 있다.

한민족은 우수한 민족이지만, 뛰어난 지성을 타고났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선왕조 때, 학자와 지식인은 많았지만 지성적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조선중기의 재상이었던 장유(張維)는 그의 <계곡만필(谿谷漫筆)>에서 '이 나라에는 학자가 없다!' 고 말했다. 조선 학자의 고식적인 태도가 지성인의 배출을 저해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인들이 늘 보이는 '쫓리는' 현상이라든가, 정치가 영문도 모를 포퓰리즘(populism)으로 흐르는 경향 등은 지성과는 거리가 멀다. 지성적인 성품이라면, 남이 부는 나팔에 부화뇌동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한국 국민은 세계에서 책 안 읽기로 이름나 있다. 어찌 된 일인가. 책을 읽기 싫은 국민이 지성적이 될 수는 없다. 입을 만한 책도 많지 않다. 한글전용으로는 수준 높은 사상이 나올 수도 없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한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한자는 우리 글자가 아니니 폐지하라는 고식적인 문화관으로는 지성은 영영 자랄 수 없다. 이런 문화의식으로 일본을 따라잡는다? 아마 어렵도 없을 것이다. 한글전용으로는 인문학은 영영 설 땅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나는 본다.

인문학은 분명히 위기에 빠져 있다. 그것은 '묻지마' 식의 한국인 성품 속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 같다. **人間**



지금 이 눈에
어떤 색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티없는 눈으로 보는 처음 색이기에... 파란하늘도, 빨간사과도, 노란나비도
자연과 가장 가까운 정직한색! 삼화의 컬러 휴머니즘이 만듭니다.

SAMHWA

삼화페인트

